

Robert Vannoy, 신명기, 2강

© 2011,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JEDP 이론과 신명기 계속

다. JEDP 이론에서 신명기 날짜의 중요성 1. 검토

좋습니다. 강의 개요를 보면 로마서 I부터 시작하여 A와 B, “신명기의 일반 주석”과 “오경의 기원에 관한 현재의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C, “JEDP 이론에서 신명기 날짜의 중요성”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약간의 복습을 통해 벨하우젠의 오경 분석 결과 중 하나를 언급했는데, 그는 법전의 수를 분리한 다음 그 법전들을 연관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20-23장의 언약 코드를 가지고 JE와 연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론 원본 문서 D와 관련된 신명기 법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결 법전 [H]과 사제 법전 [P]이 있었습니다. 사제 코드는 원본 문서 P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결법은 D와 같은 시기에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당신이 JEDP의 발전과 그것과 관련된 법의 발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D 코드는 요시야 시대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신명기이고, 기원전 621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기원전 621년에 고리가 있는 하나의 코드입니다. 예배. 벨하우젠은 이 신명기 법전은 중앙 집중화를

요구하는 반면, 출애굽기의 언약 법전은 제단과 예배 센터의 다양성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2. 운전자의 접근 방식: JE의 확장이자 성결법과 평행한 D

지난 시간이 끝날 무렵에 Driver's Deuteronomy 해설을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Driver는 Wellhausen의 추종자입니다. 그는 “신명기와 J, E, H, P의 세 가지 코드에 대한 서로 다른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명기와 세 가지 법전의 관계를 JE 법칙의 확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D는 JE의 확장입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거룩함의 법과 유사합니다.” 성결법전과 일종의 유사점입니다. “그것은 P의 나머지 부분에 성문화된 의식 제도 및 관례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법률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P에서 성문화되었지만 훨씬 나중에야 성문화된 내용에 대한 암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Wellhausen이 개발했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일반적인 논제입니다. 이 이론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상이 진화적으로 발전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 뒤에 있는 가정입니다. 그야말로 출발점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 관습, 사상이 진화적 패턴으로 발전했다고 가정하고, 가정된 성장이나 발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배열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전체 구조 뒤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특히 신명기와 예배의 중앙집중화를 다룰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제가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점은 전체 JE DP 구조에서 신명기가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고정점인 621 BC 입니다.

3. Wellhausen Dt. 두 번째 기간이며 J 법칙에 따라 다름

벨하우젠은 구약 연구의 전체 과정을 실제로 변화시킨 책임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서문* (*The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에서 신명기가 초석이라고 그 자신이 실제로 말합니다. 32쪽과 33쪽에서 그는 “언약의 책”으로서 그 언약의 법전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기록 전체”인 J 문서는 “역사상 최초의 예언 이전 시대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문화. 그러므로 신명기는 투쟁과 전환의 두 번째 시기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시다시피, 언약 코드와 J 문서에서 신명기의 두 번째 기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신명기가 J 법칙에 문학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역사적 순서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따라서 D는 J 법칙에 의존하며, 내러티브는 독립적으로 입증될 수 있으며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

이로부터 인부들의 발견이 요시아 왕에게 지역 성소를 파괴할 기회를 주었다는 믿음으로 가는 단계는 쉬우며,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였는데, 이 책은 원래는 현재보다 짧은 형태로 독립적으로 존재했음이 틀림없다 . 적어도

오경의 모든 책 중에서 이것만이 제사 예배를 선택된 한 장소로 제한한다는 것을 그토록 오만한 표현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만 요구가 공격적인 참신함으로 느껴지고 입법자의 전체 경향을 지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러나 그의 책 뒷부분에서 그는 그 진행 과정을 설정한 후(368페이지) 첫 번째 장인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프롤레고메나(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를 다시 언급합니다. 나는 이 책이 아마도 지난 500년 동안 다른 어떤 책보다 구약성서 연구에 대한 접근 방식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컬트의 중앙집중화

368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문화의 중앙집중화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특정한 차이를 추론합니다.” 요시아에 의한 BC 621년의 중앙집권화, 이것이 그의 초점입니다. 그는 “나는 항상 그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부터 특별한 차이점을 추론합니다. 나의 모든 입장은 나의 첫 번째 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장은 그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나는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것, 즉 예배의 대변화에서 예언자들이 맡은 역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가 말하는 “예배의 대변화”는 중앙집권적인 성소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의 전체 이론의 핵심이 됩니다. 그는 “저는 항상 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5. JEDP를 따르는 다른 학자들: Deut. 기원전 621년의 종석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벨하우젠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다른 구약 학자들의 몇 가지 논평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1951년에 출판된 HH Rowley가 편집한 구약 연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에세이 모음집인 *The Old Testament and Modern Study* 에서 GW Anderson은 이 책에 “이스라엘의 종교”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283페이지에 있는 그 기사 “히브리 종교”에서 그는 “벨하우젠 연대기 체계의 핵심인 신명기의 날짜와 성격과 관련된 것보다 갈등이 더 첨예했던 때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벨하우젠 연대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신명기의 날짜를 언급합니다. 그는 갈등이 이보다 더 격렬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이론의 전체 구조가 약화되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그 621년 날짜를 흔들 수 있다면 앤더슨이 말하는 것은 전체 이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편집자인 HH Rowley는 1950년에 출판되어 여러 번 재인쇄된 *The Growth of the Old Testament* 라는 자신의 작은 책을 썼습니다. 29 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신명기 법전은 오경 비평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신명기 법전과 관련하여 다른 문서들의 연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법전은 다른 법전보다 확률이 더 높아 더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개혁의 기초가 된 율법서가 신명기였으며 이 책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말하지만, 다른 문서에도 이와 관련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서가 핵심입니다.

1965년에 출판된 구약 서문의 매우 표준적인 처리인 *이 구약: 서론* 을 쓴 Otto Eissfeldt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de Wette는 1805년 *논문 비평 논문에서* 신명기가 다음과 같은 논제를 유지합니다. 이 작품은 오경의 이전 책들과 다르며 후기 저자의 작품이므로 신명기가 발견된 시기, 즉 기원전 621년보다 오래지 않아 시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제안에 의해 신명기의 정확한 기원 시기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경의 다른 구성 부분의 연대도 결정할 수 있는 고정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De Wette의 논제는 오경 비평을 교회와 회당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붙일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논점을 제공했습니다.” 그게 뭐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저자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경 과 그 부분의 연대 측정을 대체합니다. 드 웨트의 판단에서 필요한 결론은 단지 점진적으로 도출된 것이 사실이다 . 그 자신은 우리가 P라고 부르는 출처가 D보다 오래되었다는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보세요, 순서를 정리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We

Wellhausen은 현재 순서대로 놓았고, P는 나중에 옵니다. 그러나 그 아르키메데스 요점은 여기서 Eissfeldt가 요시아 날짜와 기원전 621년 날짜를 연결하는 신명기의 논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6. Deut의 1928 JBL 볼륨. & 기원전 621년 날짜

자, 그것은 다소 강력한 용어입니다. 이것에 관한 많은 기사가 있고 나는 당신의 참고 문헌에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참고 문헌의 1페이지 하단에 있는 "서론 및 비평"을 본 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페이지에 G. Dahl의 *The Case for the Current Accepted Date of Deuteronomy*라는 기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 47권, 1928. Julius A. Bewer의 *The Case for the Early Date of Deuteronomy* , *JBL* 47, 1928 도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Helby Patton의 글이 있습니다. *The Case for the Post-Exilic Origin of Deuteronomy* , *JBL* 47, 1928. 즉, *JBL* 의 해당 권인 1928년에는 신명기 날짜에 이 문제에 대한 세 개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Bewer의 경우 초기 날짜에 대한 사례를 얻었습니다. Dahl의 경우 현재 승인된 날짜인 Wellhausen 날짜인 621년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사례인 패튼의 경우에는 신명기를 포로기 이후의 기간으로 훨씬 나중에 밀었습니다. 이제 해당 기사의 제목을 보면 이른 날짜, 621 날짜 및 늦은 날짜를 주장하는 사건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다소 기만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모두가 벨하우젠 연대가 621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사건을 제시하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또는 늦은 날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비판한 다음 해당 날짜를 벨하우젠 날짜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기사들은 약 60년 전에 진행되었던 논쟁을 아주 잘 요약한 것입니다.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돌아가서 이 세 가지 기사를 살펴보면 일부 문제에 대한 꽤 좋은 소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언급한 이유는 Dahl의 기사 중 하나인 *현재 승인 날짜에 대한 사례*(*The Case for the Current Accepted Date*)에서 실제로 Wellhausen의 관점을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기사 360페이지에서 몇 가지 논평을 했습니다. 그는 같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임박한 비판적 신앙에 대한 이유를 때때로 요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성경을 의역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경우에 이것이 사실임을 가장 강조합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함으로써 이 책은 구약의 역사, 문학, 종교 연구에서 중심적이고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성경학문이 중개하는 최고의 서비스이자 결합이었던 히브리 역사 과정의 윤리적 재구성은 무엇보다도 신명기 연대 측정의 본질적인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 비판적 구조의 타당성은 무엇보다도 신명기 연대 측정의 본질적인 정확성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소위 모세오경을 열왕기하 22장에 언급된 율법서와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로 그 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 다른 표현인 “구약성서 연구의 종석”이다. ” 구약 연구의 핵심은 신명기의 연대 측정입니다. Eissfeldt는 이를 아르키메데스 지점이라고 불렀고, Dahl은 이를 “구약성서 연구의 핵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세대의 학자들의 끈기 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은 이 발견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혁명에 다름 아닌 전체적인 비판적 입장의 재조정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 견해를 옹호하면서도 모든 것이 신명기의 날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누군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각주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성서의* 조지 풋 무어 (George Foot Moore) 는 “신명기는 고정된 지점이며 이를 참조하여 오경에 있는 다른 지층의 연대를 적어도 상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Graham은 1927년 *Journal of Religion* 에서 “그것은 그리니치의 자오선과 같은 것이 되며, 다른 문헌을 대체할 수 있는 연대기적, 심리적 관계의 고정점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구가 나옵니다.

학생: “Dahl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나요?”

Vannoy: “Dahl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핵심 구조인 JEDP 구조와 관련하여 신명기의 기능 날짜와 관련하여 “아르키메데스 지점”, “구약 연구 아치의 종석” 및 “그리니치 자오선”을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독일인을 인용하지만 여기 독일어로 인용합니다. 하지만 번역하면 이 독일 친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와 함께 전체 비판적 구조가 서거나 무너집니다. 1900년대.”

7. 신명기 연대의 중요성 기원전 621년 및 기타 옵션

그러므로 내가 시간을 내어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신명기 날짜의 중요성,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인상 깊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 말은, 621년에 신명기와 연대를 정하는 것이 실수라면, 당신은 이 정교하고 비판적인 이론 전체를 훼손한 것이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연대 문제가 아직까지 확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비판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한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비판적인 학자는 더 일찍 옮겨야 한다고 말하고 일부는 나중에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비판적 학문 분야에서도 신명기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에 관한 한, 그것은 자신을 대표하는 모세 시대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여년 동안 벨하우젠의 입장은 다양한 방향에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 기사들은 그것을 반영합니다. Dahl이 같은 기사의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말했듯이, 그는 “비판적 학자들은 누군가를 서로를 잡아먹음으로써 기분전환을 하는 식인종 무리로 재치있게 특징지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621이 확립된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중적인 처리에서 자주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널과 기술 기사를 보면 이 모든 논쟁이 비판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로 이후 날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621년 이전, 그러나 모세보다 늦은 옹호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다소 더 일찍 뒤로 밀었지만 모세까지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갖 관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모자이크 날짜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내 말은, 이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모자이크 날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좋은 대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모든 논쟁에 대해 Dahl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직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확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비판에 대한 도전으로 서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기준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 역시 때가 되면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매우 자유롭게 번역됨)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이사야 48장에서도 읽혀지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II. 신명기의 저자와 연도 A. 비판적 접근 방식에 대한 조사

좋아요, 그것은 로마 I, “JEDP 이론에서 신명기 날짜의 중요성” 아래의 C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II는 “신명기의 저자와 날짜: 비판적 접근 방식에 대한 개관”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일은 단순히 내가 이미 언급한 벨하우젠 학파의 이론을 먼저 취한 것이고, 그 다음 B는 “다양한 방향에서 고전적인 벨하우젠 입장에 대한 도전”입니다. 1. 유배 이후의 사람이다. 2. 날짜는 621년 이전이지만 군주제 기간 동안이다. 3. 군주제 이전 연대 측정이지만 모자이크가 아니고 J보다 조금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 모세 연대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연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조사를 얻습니다.

A. 벨하우젠 학파의 이론

그래서 A, “벨하우젠 학파의 이론: 나는 이미 그것의 기본 특징과 JEDP 이론 전반에 있어서 621년 연대의 신명기의 중요성을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입력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벨하우젠은 신명기를 열왕기하 22장 이하에서 언급되는 율법서로 여겼는데, 여기에는 요시아 왕 시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율법책 입니다 . 그리고 덧붙여 그는 이 책이 요시야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벨하우젠이 그의 이론을 발전시켰을 당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는 신명기만이 아니라 오경 전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따라서 벨하우젠이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켰을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은 요시야 시대에 발견된 것이 오경 전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뿐이라고 해서 반드시 논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경 전체인지 아니면 단지 신명기인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단지 신명기라는 생각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교부들은 율법서가 신명기라고 주장했는데, 그 중에는 아타나시우스, 제롬, 크리소스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신명기라고 주장했지만 모세의 저자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점이겠지요.

1. 드웨트 기여

앞서 언급했듯이 벨하우젠의 견해는 신명기이지만 요시야 시대에도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Wilhelm HM de Wette로부터 그것을 파생시켰습니다. 드 웨트(De Wette)는 신명기가 요시야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생각을 발전시켰으며, 이에 대한 그의 기본 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역사서에서 말한 것인데, 분명히 후기의 본문을 제외하고는

역사서에서 요시야 시대 이전의 신명기의 흔적이 없습니다. 즉,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시야 시대까지는 요시야 시대 이전에는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는 “후일에 기록된 것이 분명한 본문은 제외한다” 고 말함으로써 그 점을 한정합니다. 즉, 그가 말하는 것은 요시야 시대까지의 역사서에서 신명기의 영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영향처럼 보이는 것을 찾으면 그것이 신명기 기록 이후에 해당 텍스트에 다시 삽입된 후기 삽입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이 명백히 이후의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고 말했다. 왜? 왜 그들은 분명히 다른 날짜에서 왔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신명기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시야 시대 이전에는 신명기의 흔적이 없다” 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주장이다.

두 번째 주장: 그는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은 신명기가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요시야의 개혁의 성격이 신명기의 강조점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이 신명기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증해 준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De Wette는 아마도 힐기야, 훌다, 사판이 이 책의 저자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 힐기야와 훌다와 사반은 누구였습니까?

학생: 선지자요.

바노이: 힐기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홀다가 누구였나요?

학생: 아마도 선지자일 겁니다.

바노이: 그녀는 그 책이 발견된 후 그 책을 빼앗긴 여선지자였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그것을 읽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시야를 섬기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을 “찾은 것” 과 관련된 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힐기야, 여예언자 홀다,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의 저자에 관여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확신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제안입니다. 따라서 621년에 법률서의 발견과 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발견된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의적인 속임수, 즉 “경건한 사기” 였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실제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발견된 것으로, 모자이크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여기 있다” 고 생각하도록 속이는 경건한 사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신명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사실이 아닌데도 그런 내용을 거짓으로 제시할 만큼 기만적인 사람들이 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급진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특정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Wellhausen/de Wette 입장에 동의한 일부 사람들이 제시한 좀 더 온건한 견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명기가 요시야

시대보다 이전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히스기야나 므낫세 시대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나 므낫세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실제로는 므낫세 시대의 끄찍한 배도 기간 동안에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시대에 실제로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견해에 따르면 신명기는 요시야 시대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율법으로 선포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이 견해에 대한 또 다른 논평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합의 뒤에는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논쟁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기사이고 거기에 있는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신명기가 그러한 개혁의 원동력이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정은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역사적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신명기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날짜에 대한 연결을 잃게 됩니다. 이제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신명기는 경건한 사기이지만 왕서는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 “신뢰성에 관한 한, 이것이 고의적인 속임수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은 고의적인 속임수였다' 고 말했다면 그것은 실제로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Vannoy: 글썄요, 제 말은 이 논쟁의 일부에서 취한 것인데, 요시아 치하의 종교 개혁의 성격, 즉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 신뢰할 만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신명기가 발견되었다고 말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Dahl은 376페이지에서 내가 이전에 당신에게서 읽은 동일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장의 역사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부분에 달려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의심이 있어도 열왕기하 22장과 그 이후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를 마치 그들의 증언이 단독이고 뒷받침되지 않는 것처럼 분리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명기를 문학적, 종교적 발전의 특정 틈새에 두는 풍부하고 독립적인 증거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록의 본질적인 신뢰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문학 비평에 의해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Kings의 편집자는 여기서 자신의 글과 문체와 사상이 확실히 구별되는 오래된 글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책은 아마도 포로 이전 왕들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요시아와 동시대의 사람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며, 어쨌든 586년의 대재앙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 , 나중에 나온 내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장의 내용을 허구로 표시하는 것도 아니며, 훗날 자료를 명백히 개작한 것이 주요 이야기의 명백한 냉철함을 압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치게 정제된 회의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역사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에 맞서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역사성을 옹호하려는 비판적인 학자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 세련된 회의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 이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일부 전통에 대해 역사적 기초를 전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모두 천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은 대부분의 것보다 더 잘 입증된 것 같습니다. 개연성의 균형은 확실히 열왕기하 22장의 일반적인 역사성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방법은 정반대인데도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 역사성을 주장하려는 이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이후 날짜로 옮기려는 일부 사람들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역사성에 도전합니다 .

이것이 바로 Wellhausen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일반이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달은 신명기를 이스라엘의 문학적/종교적 발전의 맥락에 위치시키는 풍부한 독립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론이 역사적 증거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2. 종교공헌의 역사

하지만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것이 다른 곳에서 종교가 발전했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가 진화적 패턴으로 발전했다는 오랜 견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경을 보면 장엄하고 정교한 신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초기에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고상한 신 개념은 늦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은 P입니다. 그것은 유배 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것은 사물의 진화적 계획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종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스라엘 종교 발전의 역사를 역사비평적 방법으로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3. 기적을 반대하는 편견

그들이 전념하고 있는 역사적 비평적 방법은 처음부터 신의 개입과 그런 종류의 기적적인 일들을 배제하는 방법입니다. 즉, 역사비평 방법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비유를 가지고 작업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경험의 일부가 아닌 사건을 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비유는 신의 개입과 기적적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통제하는 일종의 통제 수단입니다. 방법론이 설정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의 개입이나 기적을 발견하는 곳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텍스트에서 해당 내용을 찾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며 신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그런 종류의 자연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하고 본질적으로 이 방법론에 이질적인 재료에 그것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10분 정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다양한 방향에서 벨하우젠 입장에 대한 도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에밀리 덴블레이커(Emily DenBleyker) 작성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